

***** 공지사항 *****

1994년도 품질의 달 행사 계획 안내

대일 수출 유망 169 품목 선정 안내

1. 개요

가. 취지

금년도 국정목표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
해 전산업에 품질의식을 높이는 한편, 품질경
영을 산업경쟁력 강화의 실천수단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금년을 『품질의 해』로 정한
바 있다.

오는 11월 『품질의 달』을 맞이하여 그 동안
품질경영(QM) 활동에 앞장서 온 숨은 공로자
와 우수업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사기를 진
작시키고, 생산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경영자와 관리자, 현장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여 품질혁신 의지를 굳게 다지고, 품질경영
확산분위기를 고조시킴으로써 품질경영을 확
산, 신경제 건설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
함이다.

나. 행사주관

○주최 : 한국표준협회

○후원 : 공업진흥청

다. 주요행사

행 사 명	일 자(기간)	장 소	비 고
(본행사) 제20회 전국 품질 경영대회	'94. 11. 25(금) 10:00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부대행사)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94. 10. 11(화) ~14(금)(4일간) '94. 10. 17(월) ~21(금)(5일간)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실	9일간 개최
제12회 품질경영 심포지움	'94. 11. 4(금)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실	한국표준협회
제4회 신뢰성 심포지움	'94. 11. 18(금)	한국표준협회 강당	한국표준협회
품질경영유공자 및 우수 분임조 초청 다과회	'94. 11. D	-	우수분임조 품질명장등 (300명예정)

우리나라의 수출상품 가운데 여행용구, 남자
용 면제셔츠 등 의류, 식탁용품 등 총 169개
품목의 대일수출이 유망시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됐다.

무역협회는 10월 19일 우리 상품의 경쟁력
요인과 일본의 수입수요를 중심으로 대일수출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선정됐다고 발표
했다.

무협은 이들 유망품목을 향후 수출확대 가능
성을 중심으로 분류할 경우 특히 여행용구·식
탁용품·축전지·VTR·컬러TV·소형차·뉴
시대 등 56개 품목의 대일 수출이 가장 유망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플라스틱 제품·인조섬유제 의류·열전
자관·다이오드·차량부품 등 92개 품목은 대
일수출이 상당히 유망시되고 있는 품목으로 분
석됐으며 가죽제, 여행용구·철강재 스크류·
가정용 냉장고·전자악기·플라스틱제 가구
등 21개 품목은 유망품목으로 분류됐다.

대일수출유망 품목을 산업별로 보면 섬유류
47개 등 경공업분야가 80개로 가장 많았고 중
화학제품은 전자·전기 36개를 포함 총 60개
품목이었으며 1차산품은 29개 품목으로 집계
됐다.

또 일본시장에서 이들 유망수출품목의 주요
경쟁국은 중국·미국·이탈리아 등지로 나타
났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후발개도국과의
경합도 매우 치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1차산품은 중국·미국·칠레·대만·
호주와, 경공업 제품은 중국·이탈리아·대
만·태국·인도네시아와 치열한 경합을 벌이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화학분야 유망
수출상품은 미국·싱가포르·독일·중국·말
레이시아 등이 주요 경쟁상대국으로 주목됐다.

대일 수출유망품목은 우리 상품의 경쟁력 부
문에서 최근 3년간의 품목별 평균수출규모, 최

공지사항

근 3년간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특화지수, 최근 3년간의 수출특화지수 변동상황 등 3개 항목과 일본의 수입수요부문에서 최근 3년간 일본의 수입이 일정 규모 이상인 품목, 최근 3년간 일본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품목 등 총 5개 항목을 A, B, C 3단계로 평가해 선정한 것이다.

169개 대일수출 유망품목중 전자관련 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목명	종합평가	신규유망품목여부
가정용 냉장고	C	
디지털식 자동처리기계	B	신규
컴퓨터 입출력장치	A	신규
컴퓨터 부분품	B	
직류전동기, 발전기(750W이하)	C	
변압기(용량 1KVA이하)	A	
피스톤식엔진시동용 축전지	A	
기타의 연산축전지	B	
전기기기의 부분품	B	
유선전화용기기	A	
유선전신용기기	A	
가청주파증폭기	B	
음향기기 부분품	B	
기타 음성재생기(자동차용)	B	
영상기록, 재생용기기(M/T용)	A	
기타 음향, 영상기기부분품	A	
마그네틱테이프(폭 4mm이하)	A	
마그네틱테이프(폭 6.5mm초과)	A	
텔레비전 카메라	A	
무선 원격조절기기	B	
음성기록기결합 무선전화기	A	신규
음성기록기결합라디오수신기	A	
음성기록기 결합 기타라디오	A	
기타 초단파수신기, 호출기	A	
칼라텔레비전 수상기	A	
각종 안테나 및 부분품	B	신규
기타 레이더기 부분품 등	A	
전기저항기(용량 20W이하)	C	
열전자관, 광전관(천연색)	B	
다이오드(감광성, 발광제외)	B	
트랜지스터(낭비율 1W미만)	B	
기타소제(웨이퍼등)	B	

품목명	종합평가	신규유망품목여부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B	
디지털식 모노리드크 직접회로	A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B	
집속자와 부착한 전선	C	
전기식 부분품(DRAM Module)	A	
기타 사진기(폭 35mm롤 필름)	B	신규
정전기식 사진복사기	A	
기타 액정디바이스 등	B	신규
팔목시계(광전자식표시부)	B	
기타현악기(기타, 하프 등)	B	
전자악기(건반악기)	C	
기타 전자악기(아코디언 등)	B	

신기술인정 'KT' 마크로 통합 안내

과학기술처는 '국산 신기술의 인정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함으로써 그동안 시행해 오던 신기술 인정제도를 KT마크제로 통합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5월부터 과거처 고시에 의해 운영돼 온 KT마크제가 기술개발촉진법으로 근거를 갖게 돼 활성화됨은 물론 과거처에서 신기술 인증을 받은 37건의 기술에 KT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통합에 따라 KT마크 제도의 운영방식 및 획득업체에 대한 지원제도가 다소 달라지는데 KT마크 획득기술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다.

새로운 KT마크제에 따라 앞으로 KT마크가 부여되는 대상은 시작품 또는 상품화된 후 2년 이내에 국내개발된 기술이다. 획득희망 업체는 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서류 및 예비심사-종합심사-신기술인정예고-이의신청기간-인정서 교부 및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KT마크의 인정기관은 종전과 같이 3년이며 획득업체에는 중소기업창업기본법에 의한 창

공지사항

업지원, 중소기업은행 등의 기술개발자금 등을 수혜케 된다.

현 제도 및 통합후의 제도비교

구분	통합 전		통합 후
	기술인증	국산기술인증(KT)마크	국산기술인증(KT)
근거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	과기처고시 93-5(93. 5)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등
시행기관	과기처 기술개발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방법	관련연구기관등에 심사 의뢰-인정서 발급	산기협(심사위원회등) 심사-이의신청-인정서 발급	심사위원회(과기처위촉, 산기협운영)심사-이의 신청-인정서 발급 KT
마크사용	없음	KT마크사용	마크사용
인정효과	중소기업창업시 조세, 자 금지원 등	자금·홍보지원 및 적용 제품의 공신력 제고	조세, 자금, 홍보지원 및 적용제품의 공신력 제고
인정현황	'86~'94 현재: 37건 인정	'93~'94 현재: 201건 인정	'94하반기: 189건 심사 중

일류화 품목 13개 선정 안내

정부는 일류화상품으로 반도체 D램·홍삼·김치 등 13개품목을 선정하고 선진 일류상품과 대등한 수준으로 소수 정예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부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류화 상품 품목조정도 2년마다 실시, 일류화 상품과 업체의 적합성 여부를 재검토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세계일류화사업을 전면 재편키위해 박운서 상공자원부 차관 주재로 제1차 일류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선정했다.

상공자원부는 앞으로 일류화사업을 한국상품의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표품목의 소수 정예화, 한국의 대표적 문화상품에 초점을 맞춰 나가기로 하고 반도체 D램·텐트·모자·앰프리시버·전자레인지·혁제운동화·납시대·PC모니터·혁의류·양말·피아노·홍삼·김치 등 13개품목을 일류화상품으로 선정했다.

이와함께 최근 국제적으로 품질수준을 인정받고 있는 카메라를 비롯 손톱깎이·핸드백·초음파 영상진단기 등 4개품목은 재검토, 내달 중 최종 확정기로 했다.

일류화업체 선정은 일류화 상품별로 원칙적으로 1~2개사에 한하되,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상공자원부는 일류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일류화 상품으로 선정된 상품에 대해 한국의 대표상품임을 나타내는 일류화 로고를 새로 제정하여 수출품에 부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일류화상품 품목조정도 매 2년마다 실시하며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홍보 및 마케팅 노력 등 일류화 추진실적이 저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키로 했다.

또한 일류화 상품중 대기업 제품에 대한 직접 지원은 가급적 지양하고 중소기업은 우대,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류화업체간 정보교환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한편 품질 및 마케팅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류화업체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상공자원부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11월중 일류화상품을 선정 고시하고 공진청 주관하에 일류화상품 품질 기준을 제정한 후 업체의 신청을 받아 내년 1·4분기까지 일류화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상담센터 안내

기술개발 및 혁신에 대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센터인 기술개발상담센터가 문을 열었다.

최근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와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술개발진흥기관의 연구개발자원을 민간기업이 손쉽게 이용, 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상담센터

***** 공지사항 *****

터를 설치·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상담센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7개 정부출연연구소의 전문인력·연구기자재·국내외 기술정보·연구경험 및 실적 등 민간의 기술애로 해결시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개인이 연구개발을 통해 창업에 나설때도 상담센터를 노크할 수 있다.

특히 기술개발상담센터는 애로내용에 대한 일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상담제(One-Stop)를 도입하고 있을뿐 아니라 사후관리도 병행, 기술상담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상담신청을 하면 기술개발센터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분야별 전문위원, 기술정보전문인력, 과학기술관련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 해결책을 제시한다.

상담센터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가 접수될 경우 22개 유관기관에 상담요청을 한다.

전문기관은 각 분야별 정부출연연구소들, 기술진흥은 5개 전문상담기관을 각각 연결시켜 준다.

상담신청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화·전자사서함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도 무방하다.

기술개발상담 신청은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02-957-0685)와 연구개발정보센터(042-869-1720/2)로 하면 된다.

유럽시장에서의 "Anti-Dumping Law 및 GSP" 설명회 개최 안내

영국 북잉글랜드 산업개발공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유럽시장에서의 Anti-Dumping Law 및 GSP"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아울러 삼성그룹의 전자복합생산단지와 금성사의 통합가전공장이 들어설 "영

국 북잉글랜드" 지역에 대한 투자환경 설명회와 삼성 및 금성사의 투자사례 발표회도 있을 예정입니다. 설명회 후에는 칵테일과 간단한 저녁부패 및 1995년도 포켓다이어리도 준비하였습니다. 꼭 참석하시어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1994년 11월 24일 15:00~18:30
2. 장소 : 조선히텔 2층 세미나룸
3.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북잉글랜드 산업개발공사
4. 후원 : 한국전자공업진흥회
5. 참가신청 : NDC 서울 대표부
전화 : 715-7223, 팩스 : 715-7225

안전검사 품목 안내

공진청에서는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안전검사)에 의거 소비자의 생명, 신체상의 위해,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검사 품목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8조(안전검사의 기준)에 의거 안전검사 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제조·판매·수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50개 품목에 대하여 안전검사 품목으로 지정하여 제품별 안전검사기준을 제정 고시하여 동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제조·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동기준에 일정한 사항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업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검사품목 현황

○ 사전검사 대상 공산품

분야	품	목	명
화 학	○건전지		○양식용투자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안전유리
	○부동액(방식제류 포함)		○제생타이어(트레트고무 포함)

***** 공지사항 *****

분야	품목명
	○자동차용 앞면창 유리 세정액
섬유	○양탄자 ○등산용로프
급속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생활용품	○유모차 ○작동완구 ○외출롤러스के이트 ○보행기 ○승차용 및 운동용 안전모(승차용 눈보호구 포함)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및 보우트 ○유아용침대 ○자동차용연소자보호장치

○ 사후검사 대상 공산품

분야	품목명
화학	○판유리 ○수경 ○합성세제 ○지독성페인트 ○벽지 및 종이장판지 ○유해물질 함유 화학제품
토건	○물탱크
섬유	○텐트 ○스포츠용 구명복 ○유해물질 함유 섬유제품
기계	○빙삭기 ○오일헨터
전기전자	○할로겐전구 ○가정용비디오게임기
급속	○알루미늄후라이팬 ○주택용사다리
생활용품	○착화단 ○라이터 ○스키용구 ○접착걸이 ○간이빨리걸이 ○유아용의자 ○롤러스के이트 ○아용동이 단침대 ○유해물질 함유 학용품 ○보온·보냉요기 ○자립형 화분 받침대 ○가정용헬스기구 ○완구(작동완구 제외) ○물품운반 간이손수레 ○5염화석탄산 및 포르말린 함유제품 ○유아용삼륜차 및 아동용 이륜자전거

'95년 기술정책과제 35개 선정

정부는 내년중 산업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단계별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특성화, 국산 신기술제품 보증보험제도 도입, 기술등록 및 상설기술거래시장 개설, 지역정보화 모델 구축 등 35개 기술정책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29일 상공자원부는 산업기술개발체제 구축, 기술인프라 구축, 신기술의 사용화, 기술인력육성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5개의 「95년도 기술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상공부는 이들 정책과제별 내부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국산 신기술제품의 성능에 대한 보증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해 개발기술사업화 단계에서의 위험분산과 판로확보 등의 지원을 모색하며, 영리목적의 경영기술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사업자 육성을 위한 「경영·기술 컨설팅업 육성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또 기술단계(연구개발-실용화-양산화)에 따른 금융기관별 기술개발자금 특성화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내년 5월말까지 「종합적인 기술개발금융의 활성화 및 연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기업 또는 관련 기관의 기술도입 및 판매희망 기술정보의 등록을 실시하며 기도입 기술정보·신기술정보 합작투자 플랜트 수출정보 등을 DB화해 기술등록 및 상설기술거래가 항상적으로 가능토록 할 것이다.

기타 주요 대상과제로는 해외원천기술 소재지에 산기협력센터설치, 논문박사제 도입, 조달제도를 통한 기술개발 촉진, 연구관리 전담기구 통폐합 등이 있다.